

여수엑스포 결정 D-5

BIE 신규 가입국 판세 최대 변수

북한 가입 여수에 큰 도움될 듯

중동·阿 국가들 중심 5개월새 34개국 늘어  
분단국 남·북 협력...부동층 한국 지지 견인

오는 27일 새벽 3시(한국시각)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에 참가하는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이 21일 현재 132개국으로 대폭 늘어나 2012 여수엑스포 유치의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으로 가입, 박람회 개최국 선정 투표에서도 한 표를 행사하게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에 따르면 21일까지 BIE에 가입한 회원국은 모두 132개국. 지난 6월말까지만해도 98개국에 머물렀던 회원국이 5개월도 못돼 기존 회원국 3분의 1이 넘는 34개국이 증가한 것이다. 유치위원회는 또 금명간 도미니카(미주), 동티모르(아시아), 이집트(중동)도 회원국에 가입해 135개국까지 늘어나는 등 총회 개최 직전까지 회원국 수는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역별 회원국은 유럽이 37개국으로 가장 많고 미주 30, 아시아 28, 아프리카 25, 중동 12개국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총회를 앞두고 BIE회원국이 급증한 것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맞수로 떠오른 모로코가 중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지성향국가들을 집중적으로 가입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9~10월에만 지부티, 콩고, 코모로, 과테말라, 니제르, 가봉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 지지성향국

가 가입 권유를 금지한다는 BIE의 신사규정을 어긴 모로코의 전략이 노출됐다.

한편 북한이 BIE회원국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돼 우리나라 득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북한이 지난 19일 프랑스 외교부에 BIE 가입서를 제출해 회원국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북한도 27일 BIE 총회

에서 있을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국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BIE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가입의 문이 열려 있으며 가입서를 제출하는 즉시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된다.

북한의 BIE 회원국 가입은 지난날 개최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화에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따라서 북한의 BIE 회원국 가입은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국제사회에서 공동협력에 노력한다는 약속의 결과물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의 BIE회원국 가입은 강력한 라이벌

인 모로코가 중동·아프리카 국가를 집중 가입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편이다. 즉 국제사회에 분단상태인 남과 북이 여수엑스포를 위해 힘을 모으고 나섰다는 상징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직 지지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층이 한국을 지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관계자는 "북한이 후보 도시 중 여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한의 BIE 회원국 가입이 여수 박람회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한국대표단이 21일 낮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박람회 유치위 관계자들이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1일 광주시 디자인센터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건설관리본부, 전남도 농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옛새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문화수도 광주, 문예진흥기금 지원 '찜뭇' =광주시의회 나종천(민주·남구2) 의원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광주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은 47억원으로 전국 11위, 문예진흥사업 예산규모는 지난해 4억1천800만원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중 맨 꼴찌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매년 '지역문화활성화지원금'을 지원할 때 각 시·도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광주시의 경우 최하위인 E등급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문화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문화수도를 꿈꾸

“문화수도 광주, 문예진흥예산은 꼴찌”  
“전남도 운영茶水시험장 국립화 급하다”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는 만큼 그에 걸맞게 기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디자인센터 제 역할 못해 =광주시의회 이철원(민주·북구5) 의원은 "지난해 4월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관한 디자인센터가 지역 디자인산업 발전과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남동구 상무지구 등에 분산돼 있던 디자인업체들이 센터

에 입주하면 고가의 디자인 관련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입주했으나 센터측이 1년6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장비를 갖추지 않아 외부에서 작업을 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친화적 시설제 사용을 =손재홍(민주·동구2) 의원은 광주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광주시가 올 겨울 도로 제설을 위해 1억400만원을 들여 열화칼슘(361t), 모래(236t)를 확보했으나 열화칼

슘의 경우 철과 반응하면 열화철을 형성, 도로 및 교량바닥의 철 구조물을 부식시키고 가로수 성장 저해, 하천오염 등의 문제를 낳는다"며 친환경 시설제 사용을 주문했다.

◇전남도 차 시험장 국립화 =전남도의회 황병순(민주·보성1) 의원은 "전남도가 차 시험장 운영을 보성군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 중이나 이는 차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차 소비 인구 및 재배 면적 증가 등을 감안, 국립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일본은 국립 2개와 현 시험장 20개, 중국은 국립 1개, 성 시험장 6개를 갖추고 육종 개발을 통한 품종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도 산하 시험장이 단 한 곳 밖에 없다"며 국립화를 통해 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결국 전남도가 F1대회 떠 안나

특별법 무산 후유증 현실화 조짐

'F1(포틀러인)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F1특별법) 제정 무산의 후유증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이다.

F1특별법 제정이 물 건너가면서 벌써부터 경주장 건설이 차질을 빚고 사업 재원 조달 등의 부담이 전남도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 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고 전남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F1대회를 도가 모두 끌어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설부터 걱정도 나오고 있다.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F1경주장 건설비 조달 등 사업추진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연말까지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F1대회 운영주체인 KAVO의 자본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KAVO의 대주주인 MBH사는 현재 싱가포르, 영국 등 국내외 자본 유치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MBH사가 사업비 조달에 실패할 경우 전남도가 MBH의 자본(51%)을 인수하거나 자본력·신용도가 뛰어난 제3기업 위주로 자본구조를 바꿔야 할 상황이다.

F1특별법 무산으로 대외적인 공신력 확보에 차질이 생겨 MBH사로는 자본 유치가 한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개발 계획 승인이나 부지확보 과정에서 F1특별법 대신 기업도시특별법에 근거해야 하지만 신생법인인 MBH사의 신용도가 없어 기업도시특별법 법적요건인 신용평가 기준(BBB)을 충족시킬수 없다는 점도 이같은 우려의 근원이다.

F1 경주장 건설도 걱정이야. 전남도는 현재 시공착량이나 터닥기 등 경주장 건설 준비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재원조달만 제대로 이뤄질 경우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MBH사가 자본유치에 실패할 경우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 2010년 첫 대회를 앞두고 반드시 필요한 연내 착공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본격 착공일정은 당초 예정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2010년 상반기 완공은 가능하다"며 "F1특별법 제정에는 실패했지만 도민들이 인내력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F1특별법 기사희생?

정기국회 연장 논의 극적 통과 가능성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가 지연되면서 정기국회 일정 연장 및 임시국회 개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F1특별법(포틀러 인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극적인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2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감액 부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최소한 5조원 대의 내년도 정부 예산 삭감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대통합신당 측은 삭감 규모가 너무 크다는 입장인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각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당간의 논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 국회 예정위의 정부 예산 심의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 기간을 법적 정지권에서는 정기국회 폐회하고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되면서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망됐던 F1특별법의 극적인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기국회 일정이 연기되거나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여야의 합의 여부에 따라 F1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21일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문공위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F1특별법과 경주 특별법의 연계 처리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효석 원내대표는 개회권료 지원 등 정부 예산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F1특별법이 F1 대회 개최의 법적인 근거 마련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나라당을 설득, 이번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서 F1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2007 Winter Festival' (2007 겨울축제) in Gwangju. It features a grid of various food and service items with prices. The items include: 1. Various types of 'Jjimdang' (noodle soups) ranging from 4,000 to 7,000 KRW. 2. 'Jjimdang' with different toppings like beef, pork, or chicken, ranging from 4,500 to 7,500 KRW. 3. 'Jjimdang' with special ingredients like squid or fish, ranging from 4,500 to 7,500 KRW. 4. 'Jjimdang' with various meats and vegetables, ranging from 4,500 to 7,500 KRW. 5. 'Jjimdang' with different types of noodles, ranging from 4,500 to 7,500 KRW. 6. 'Jjimdang' with different types of meat, ranging from 4,500 to 7,500 KRW. 7. 'Jjimdang' with different types of vegetables, ranging from 4,500 to 7,500 KRW. 8. 'Jjimdang' with different types of seafood, ranging from 4,500 to 7,500 KRW. 9. 'Jjimdang' with different types of fruits, ranging from 4,500 to 7,500 KRW. 10. 'Jjimdang' with different types of drinks, ranging from 4,500 to 7,500 KRW. The advertisemen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Gwangju Winter Festival' (광주 겨울축제) and 'Gwangju Winter Festival' (광주 겨울축제).